

# 희망을 키우는 곳, 나섬공동체

글\_ 이만희 · 부산쉼터 원장



▲ 나섬공동체 거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의 안식처, 이곳 쉼터를 찾아 오기 전 이들의 모습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작은 보금자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작게 미치는 별빛이라도 될 수 있다면... 이따금 보도되는 에이즈 신약 개발 소식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지만...

만약에 의사로부터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당신은 이제 몇 개월 혹은 며칠을 못 살 것이라 하면 죽음에 대한 절망된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가장 기깝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는다면 결국은 심한 좌절감에 스스로 복숨을 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 자포자기하다 이곳에서 생의 의미 찾아

어쩌다 에이즈에 감염되었나며 눈물로 자신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 때문에 심한 우울증으로 세상과 차단하며 술과 담배로 시간을 보내던 이들이 보건소 담당 직원들의 설득으로 이곳에 입소할 때는 체중이 43kg과 CD4 100-40 이하로 곧 쓰러질 듯한 초췌한 모습이였다. 이곳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몸무게 80kg과 CD4 300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보다 마음이 편하여져서 이제는 같은 식구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본인의 용돈이라도 벌어야 하

며, 그리고 조금만 임대 아파트라도 구해야 한다고 매일 막노동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접한다.

자그만 채구와 곱상한 OO씨는 늘 말수가 적다. 그저 시키는 말에 '예, 아니요' 로만 답하는 그리고 묵묵하게 쉼터 내에서 청소를 그리고 요리까지도 만들어서 가족들과 나누며 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답답할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쉼터 생활 속에 그 마음의 분이 열려 이제는 원장과 그리고 쉼터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잘 하며 때가 되면 '원장님 식사 하시지요' 라며 식사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그런 OO씨를 그동안 쉼터 밖에서 감염 사실 때문에 3년 넘게 상담했던 감염인이 부산 시내 모처에 노래 연습장을 시작하는데 감염인 중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해주었다. 그곳에서 함께 숙식하며 가게를 운영한다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이따금 그곳 노래 연습장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OO씨가 전화를 해서 '쉼터원장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쉼터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묻기도 한다.

이곳 쉼터에 잠시 머물렀던 △△씨는 감염된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져 집에서 옷가방 하나만 둘러진 채 집에서 쫓겨나 승용차 안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보건소 담당자에게 머물 곳을 문의하다가 이곳 쉼터를 찾게 되었다. 쉼터에 입소하여 2주일 정도 머물다가 새로운 일터와 잠자리를 마련했다며 고

마워했다. 자리가 안정되면 다시 찾아뵙겠다고 퇴소하여 지금도 이따금 안부 전화를 하곤 한다.

### 병원 후송부터 입원 보증까지 해주기도

여기 부산 쉼터는 2000년 10월 초 개원 이래 경남(울산, 창원, 김해, 진해, 거제 등)과 부산에 거주하는 감염인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을 받아 오갈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감염인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다.

이곳에 머물며 생활하는 감염인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독한 결핵약과 에이즈 치료약을 복용한다. 저들은 입소하기 전에는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로 체중이 감량된 상태이고 입맛도 잃은 상황이기에 우선 저들의 입맛에 맞는 밀반찬과 고단백 한우뼈(사골/사태 뼈) 국물과 고기를 계속적으로 섭취하게 해준다. 입소한 감염인들의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됨을 쉼터에 비치된 디지털 체중계를 통해 확인될 때 기쁨을 함께 나눈다.

돌발적 진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쉼터 차량으로 병원에 긴급 운송하여 입원치료하기까지 담당해주며, 쉼터원장이 입원점차에 보호자로서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한 달에 한번씩 감염내과 의사와 신경정신과 의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감염인들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 본인이 원한다면 쉼터 내에 비치된 각종 건강관리기(지압침구, 발 마사지기, 체온계, 혈압계, 체중계 등)와 아령, 역기 등으로 체력 관리와 장기, 바둑판, TV, 오디오 등과 같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매주일 치러지는 종교의식과 주중에 원장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신 건강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겨우네 두렵게 얼었던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감염인들에게 마치 몹쓸 죄라도 범한 이들에게 보내는 눈총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변하여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고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 위로부터 주방, 감염인 방

※ 쉼터입소 문의 | 02)2675-4111